

PACKAGING NEWS



협회 · 회원사

- (사)한국포장협회 차이나플러스 2024 참관
- (사)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위원회 회원간 소통 강화 우선
- (사)한국포장협회 화성지역 모임
- (사)한국포장협회 2024 골프 시구 행사
- 삼일포장산업(주) 녹색기술인증 획득
- (주)삼원기업 사업장 확장 이전
- 오리온 글로벌 제약기업 리가캠바이오사이언스 인수 완료
- SK지오센트릭 · 울촌화학재활용 용이한 플라스틱 포장재 개발 나선다
- 롯데알미늄 이차전지 · 패키징 분할 신설회사 출범

업계

-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시행
- 한국환경공단 2023년 총 478억 원 재생원료 수출 지원
-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 제40차 정기총회 개최
-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 하반기 사업 검토 간담회...협력사항 논의
- (사)한국포장기계협회 제24회 국제 포장기자재전(KOREA PARK 2024) 성료
- 동아제약 박카스D 패키지 손잡이 종이로 변경
- SKC 에코밴스, SK리비오로 사명 변경

(사)한국포장협회

차이나플러스 2024 참관

플라스틱 및 포장 산업 동향 파악

(사)한국포장협회(회장 김창순)는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중국 홍차오 국제전시컨벤션센터(NECC)에서 열린 차이나 플러스 2024에 참관단을 파견했다.

차이나플러스 2024는 380,000sqm 면적에 4,420개 업체가 참가했고, 32만1,879명이 방문해 지난해보다 29.67%했다고 주최 측은 발표했다.

이번 전시회는 17개 테마존으로 운영했으며,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스위스, 영국, 미국, 대만이 국가관으로 참가했다. 특히 'Made in China' 라는 슬로건을 콘셉트로 변화하는 중국을 강조하며 중국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포장분야의 전시제품들은 지속가능한 제품과 친환경을 강조했고 이 제품들의 원료, 생산설비가 대량으로 전시됐다. 특히 그린솔루션은 3개의 테마존으로 분류돼 전시됐는데, 리사이클플라스틱존, 바이오플라스틱존, 리사이클 기술존이 그것이다. 또한 스마트 메뉴팩처링, 서플라이체인 등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과 함께 몰딩, 고무 등 디지털화된 전시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다.

이와 함께 전시제품과 관련된 세미나는 10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60개의 핫토픽을 다루었는데 특히 의약포장, 식품포장, 그린포장도 포함됐으며, 기업들의 제품발표회가 세미나장과 전시공간 곳곳에



▲ 차이나플러스 2024 참관단이 기념촬영을 했다.



서 진행돼 참가 및 참관자들의 흥미를 더해 주었다.

지난 전시회보다 풍성한 볼거리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워야 할 것들도 많았다”고 입을 모았다.

차이나플러스 2025는 중국 심천 세계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사)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위원회

회원간 소통 강화 우선

오선윤 위원장 첫 회의 주재

(사)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위원회(위원장 오선윤)가 지난달 11일 한국포장협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오선윤 연포장분과위원장이 선임된 첫 번째 회의로 회원들의 관심 속에 많은 인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 참석자들은 회원간 소통과 단합을 통한 위원회 역할을 강조하고 소속 회원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줄여나가는데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양한 협력 방법을 모색해 회원간 윈-윈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사)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위원회가 지난달 11일 한국포장협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오선운 위원장은 “연포장분과위원회를 편안하게 운영하고 웃으며 진행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위원회는 작수 달 2번째 목요일을 정기 모임으로 정해 운영되고 있다.

(사)한국포장협회

화성지역 모임

비회원 참가 확대를 통한 회원가입 유도

(사)한국포장협회 화성지역 모임(지역장 김보철)이 지난달 9일 화성지역내 반값소에서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임경호 전 회장을 비롯한 김보철 지역장, 소형섭 총무 등 16명이 참석해 지역내 협회 회원사간 정보 공유를 통한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화성지역 모임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협회 지역모임 중 하나로 회원 참여가 많고 회원의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비회원의 참가 확대를 통해 협회 회원사로 가입하도록 유도해 협회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날 모임에는 협회 가입 후 처음 참석한 (주)오크 김대근 대표와 엠더블유코프 박동명 대표, 비회원사인 케이에스팩 이길석 대표, 동준에이치에스 장현규 대표가 참석했다.



▲ 지난달 9일 열린 (사)한국포장협회 화성지역 모임 모습



화성지역 모임은 비회원사의 지역모임 참가를 독려해 회원사 가입을 유도하는 등 참석 회원을 늘려가고 있다. 화성지역 모임은 짝수 달 첫 번째 화요일을 정기 모임날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사)한국포장협회

2024 골프 시구 행사

회원 참여 확대 방안 강구

(사)한국포장협회 골프동우회(회장 김보철)가 지난 3월 27일 2024년 시구회를 가졌다.

시구회에는 김선창, 임경호 고문을 비롯한 회원 20명이 참석하여 동우회 참여 확대를 통한 협회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김보철 회장은 인사말에서 “동우회의 운영 시간조정과 참가 인원을 현재보다 늘릴 수 있도록 팀수 조정이 가능한지 컨트리클럽 측과 협의해 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활성화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창 회장은 격려사에서 골프를 즐겁게 치고 건강과 실력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회원 간 참여와 협력을 강조했다.

임경호 전임 협회장은 “협회가 더욱 발전되고 회원간 상생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순 신임 회장은 “협회 사업을 다양화하고 회원간 교류의 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그동안 진행해 온 포럼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수현 태화정밀 대표가 우승을, 룡기스트 이현철 (주)서일 대표, 니어리스트 임준우 (주)제이에셀 이사가 차지했다.



▲ (사)한국포장협회 골프동우회가 지난 3월 27일 열린 2024년 시구회 후 기념촬영을 했다.



회원의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리며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 임직원 일동

(주)뉴스엔지니어링
 1996년 5월 31일 27주년

(주)동서
 1975년 5월 16일 48주년

동원시스템즈(주)
 1980년 5월 10일 43주년

(주)브이티지엠피
 1986년 5월 10일 37주년

(주)서신
 1999년 5월 10일 24주년

세미산업(주)
 1995년 5월 27일 28주년

(주)신영이노텍
 2017년 5월 27일 6주년

(유)ITW특수필름
 1999년 5월 7일 24주년

(주)영테크필름
 2003년 5월 25일 20주년

(주)유래코
 1991년 5월 10일 32주년

(주)유한팩
 1995년 5월 1일 28주년

울촌화학(주)
 1973년 5월 1일 50주년

재성산업(주)
 1998년 5월 1일 25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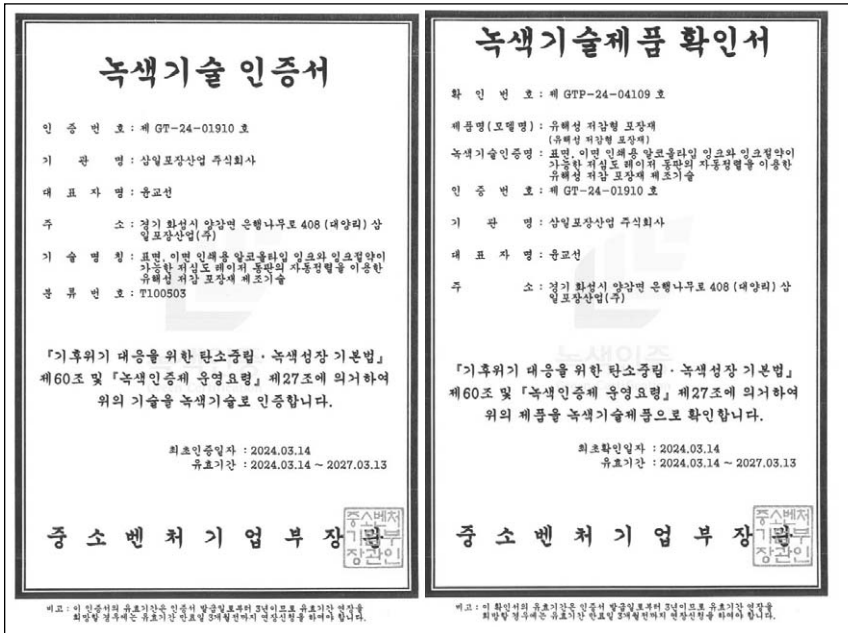
(주)태영캠
 1980년 5월 10일 43주년



삼일포장산업(주)

녹색기술인증 획득

포장재 표면 인쇄용 알코올타입 친환경 잉크 개발



▲ 삼일포장산업(주)이 획득한 녹색기술인증서와 녹색기술제품 확인서

종합포장재 전문기업 삼일포장산업(주)(대표 윤교선)이 지난달 14일 포장재 표면 인쇄용 알코올타입 친환경 잉크에 대해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했다.

삼일포장산업은 표면 및 이면 인쇄용 알코올타입 잉크와 잉크 절약이 가능한 저심도 레이저 동판의 자동 정렬을 이용한 유해성 저감 포장재 제조기술로 녹색기술인증과 녹색기술제품 확인서를 받았다.

해당 기술은 알코올타입 친환경잉크를 사용해 표면 인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일재질필름의 표면 인쇄 시에도 녹색인증기술이 적용된 포장재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삼일포장산업이 생산 중인 식빵 포장재를 비롯해 기저귀, 생리대, 농산물 포장재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2023년 1월 정보잉크와 공동으로 개발, 특허 등록된 기술이기도 하다.

녹색인증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해 유망한 녹색기술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녹색기술인증, 녹색기술 제품확인,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삼일포장산업 윤교선 대표는 “단일재질 포장재는 재활용이 우수하고 알코올타입 친환경 잉크 사용으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고객의 ESG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삼일포장산업은 1989년 설립된 후 그라비아 인쇄 제조설비를 갖추고 포장과 관련된 모든 공정을 한 곳에서 처리함으로써 최적의 가격과 최상의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해 왔다. ISO 9001:2008 및 INNO-BIZ 기술혁신 인증을 획득하며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주)삼원기업

사업장 확장 이전

“친환경적인 비즈니스 운영에 박차”

연포장 전문기업 (주)삼원기업(대표 강은혜)은 지난달 26일 본사 및 공장을 확장 이전함에 따라 관계자 약 200여명을 초청, 개업식을 가졌다.

삼원기업은 지난 1991년 설립된 후 그라비아인쇄, 드라이 라미네이팅, 실링 등 최상의 장비와 축적된 노하우를 갖추고 식품, 약품, 화장품, 반려동물용품, 농산물 등 다양한 분야에 연포장 제품을 제공해 왔다.

특히 올해 33주년을 맞아 사세 확장에 힘입어 생산설비를 증설함에 따라 공장 규모를 기존 600평에서 2,000평으로 확장, 이전하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더욱 높은 품질을 실현하고 보다 환경 친화적인 기업으로 한단계 더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이전한 주소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정로 61-24이다.

이날 삼원기업 강성공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장 증설 이전을 새로운 시작이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 발걸음이며, 더욱 친환경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우리의 다짐이다”라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금의 삼원기업이 있기까지 아낌없는 성원과 믿음을 보여준 협력업체와 회사 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 애써준 임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 (주)삼원기업은 지난달 26일 열린 개업식 기념행사에서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오리온

글로벌 제약기업 리가캠바이오사이언스 인수 완료

식품 및 바이오 사업 핵심 기반 마련



▲ 오리온 본사 전경

오리온(대표 이승준)은 지난 3월 29일 리가캠바이오사이언스(이하 리가캠바이오) 지분 25.73% 인수를 위한 주식대금 5,485억 원의 납입을 완료하고 최대주주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오리온은 리가캠바이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5만9,000원에 796만3,283주를 배정받

았으며, 창업자 김용주 대표이사와 박세진 사장으로부터 기준가 5만6,186원에 구주 140만주를 매입해 총 936만3,2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오리온은 계열사인 리가캠바이오를 통해 신약 개발에 나서며 글로벌 식품 바이오 기업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오리온은 이번 리가캠바이오 인수로 오리온은 식품 사업과 함께 바이오 사업의 핵심 축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됐다는 평가다. 리가캠바이오는 의약화학 기반 신약연구개발 회사로서 ADC 분야에서 차별적인 기술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ADC 분야에서 총 4개의 파이프라인이 임상 단계에 진입해 있으며, 현재까지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 계약 규모만 약 9조 원에 이른다. 이번 유상증자 대금 및 추후 양산 기술 수출 계약에 따른 기술료까지 더하면 약 1조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오리온 관계자는 “리가캠바이오는 사업적·기술적 측면에서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섰다. 유상증자와 기술이전에 따른 마일스톤을 통해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연구개발에 집중해 신약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가캠바이오는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기존 레고캠바이오사이언스에서 리가캠바이오사이언스로 사명을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SK지오센트릭 · 울촌화학

재활용 용이한 플라스틱 포장재 개발 나선다

고기능 플라스틱 포장재 개발 MOU 체결

SK지오센트릭(대표이사 나경수)과 울촌화학(대표 송녹정)이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크게 높여줄 지속가능한 고기능성 플라스틱 포장재 개발에 나선다.

SK지오센트릭과 울촌화학은 지난 3월 31일 재활용이 용이한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기술 개발 및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그동안 쌓아온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해 단일 소재의 고기능 플라스틱 연포장재를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필름·시트형 연포장재는 온도·습도 변화로 제품이 변질되는 것을 막고자 여러 소재를 층층이 쌓아 만들어 사실상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SK지오센트릭 관계자는 “플라스틱 연포장재는 국내에서만 연간 36만 톤이 사용되지만 여러 소재별로 분리 배출이 거의 안 돼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다”면서 “단일 재질로 고기능의 파우치형 포장재를 만들면 재활용이 훨씬 수월해져 자원순환 생태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회사는 얇은 두께에도 동일한 강도 등 향상된 물성을 갖는 플라스틱 감량 포장재를 개발할 계획이다.

발포 필름 기술 등을 활용해 동일한 기능성을 갖추면서도 플라스틱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포장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등 화학적 기술로 재활용한 소재로 제조하는 포장재도 개발할 방침이다.

SK지오센트릭은 세제와 냉동식품 등 포장에 쓰이는 플라스틱 파우치를 폴리에틸렌(PE) 단일소재로 만들어 시중에 공급해 왔고, 플라스틱 감량과 화학적 재활용 포장재 개발에도 공을 들여왔다.

농심그룹의 포장재 전문 계열사인 울촌화학은 식품 포장재에서 전기·전자 제품 보호에 쓰이는 첨단소재로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조재성 SK지오센트릭 패키징 솔루션 사업부장은 “포장재 전문기업 울촌화학과의 협업으로 재활용이 용이한 고기능성 포장재 개발은 물론 플라스틱 재활용 생태계 활성화에 기



▲ SK지오센트릭 구성원들이 SK지오센트릭의 단일 플라스틱 소재로 울촌화학이 제조한 포장재 시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경택 울촌화학 포장사업부장은 “수십 년간 쌓아온 포장재 기술과 업력을 토대로 SK지오센트릭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형 고기능성 포장재 개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롯데알미늄

이차전지 · 패키징 분할 신설회사 출범

전문성 확보로 사업 경쟁력 강화

롯데알미늄이 이차 전지 소재 전문기업과 패키징 특화기업을 분할 신설했다. 차별화된 전문성 확보를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롯데알미늄은 기존 사업을 물적 분할해 이차 전지 소재 사업을 전담하는 롯데인프라셀과 포장 사업을 담당하는 롯데패키징솔루션즈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지난달 3일 밝혔다. 존속회사의 최연수 대표가 신설법인 두 곳의 대표이사를 겸직한다.

롯데알미늄의 양극박 및 일반박 사업을 영위하던 BM(Battery Material) 사업본부는 롯데인프라셀이라는 신설법인으로, 캔 · 연포장 · 골판지 · 생활용품 · PET병 사업을 담당해온 PM(Packaging Material) 사업본부는 롯데패키징솔루션즈이라는 신설법인으로 각각 분할됐다.

롯데인프라셀은 이차전지 소재의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배터리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기업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유럽과 북미 등 글로벌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배터리 소재 전문회사로 발전시켜 고객과 함께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롯데패키징솔루션즈는 패키징 기술력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편리한 삶을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패키징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친환경 아이템과 차별화 제품을 확대해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최연수 롯데알미늄 대표는 “회사 분할로 전문 사업 분야에 집중할 수 있고 경영 효율성도 한층 높아져 기업가치를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알미늄은 지난 2022년 롯데케미칼과 함께 미국 내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소재 시장 선점을 위해 현지 합작사 롯데알미늄 머티리얼즈 USA를 미국 켄터키주 엘리자베스타운 근처에 설립했다.

롯데알미늄 머티리얼즈는 미국에 세워지는 최초의 양극박 생산 기지로 그룹 내 화학군 2개 핵심 계열사가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협력을 진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같은 해 유럽 양극박 시장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헝가리 터티바너 산업단지에 생산공장을 성공적으로 완공했고, 현재 2단계 추가 투자 중이다. 올해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시행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



▲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 마크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지난 3월 29일부터 국내 폐플라스틱을 재생 이용해 만든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시

행에 들어갔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가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식품용 페트병 및 기타 제품·용기는 최소 10%, 전기전자제품은 최소 20%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제도가 매우 활발한 반면, 그간 국내에서는 별도 표시제도가 없어 친환경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품 등을 생산한 기업의 입장에서 마땅한 홍보수단이 없었다.

앞으로는 기업의 희망하는 경우 현재 ‘분리배출 표시’ 옆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10%, 환경부’라는 내용을 표시한 확인 마크를 붙일 수 있다.

이번 재생원료 사용표시 제도 시행으로 국내 기업들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늘어나고 친환경 홍보수단이 제공되는 한편, 소비자들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재생원료 사용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확인절차가 이뤄진다.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 내역 등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별도로 재생원료 사용 확인이 가능한 인증을 받았다면 그 인증서를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절차, 신청서류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폐플라스틱 외 다양한 품목에서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를 확대 적용해 국내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2023년 총 478억 원再生资源 수출 지원

2022년 390억 원보다 23% 증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지난달 1일 2023년 총 478억 원의再生资源(페트병, 필름, 금속캔 등 4만 톤) 수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수출액 390억 원보다 23% 늘어난 수치다.

포장재 재활용업체가 생산한再生资源는 국내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 대비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환경공단은再生资源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수출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역통계진흥원과는 수출 실시간 모니터링 협약을 기반으로再生资源 수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UN,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K-EPR제도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개도국에 대한 제도 운영의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등의 핵심 역할을 수행 중이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인 UN 플라스틱 오염방지 협약에 EPR이 핵심 제도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국제협약안 마련을 위해 올해 개최되는 제5차 정부 간 협상 위원회 최종 회의에서 제도의 성과와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

제40차 정기총회 개최

기업인상 및 포장기술상 신설·포상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회장 전현수)는 지난 3월 29일 서울 서초구 더리버사이드호텔 5층 루비홀에서 제4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3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에 대한 감사 보고가 이뤄졌으며 2023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 2024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어 신입회원 회원증 수여, 임원 선임, 기타 보고사항 순으로 안건심의회가 이뤄졌으며 지난해 신입회장으로 선임된 전현수

회장이 유임됐다.

이날 협의회는 한국포장기술인협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포장기술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국내 포장산업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한 기업과 기술인에게 수여하는 기업인상과 포장기술상을 신설·포상했다.

올해는 한국포장기술인협회 자문위원으로 협의회 발전과 포장기술인의 화합을 위해 봉사하고 국내 포장기술 증진에 힘써온 삼광잉크제조(주) 김희용 회장이 감사패를 받았으며, 기업인상은 경원산업 대표인 박윤희 부회장이, 포장기술상은 울춘화학(주) 기술연구소 3그룹장 권대현 회원이 각각 수상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유한김벌리 김민수 품질팀 부장, (주)오크 김대근 대표이사, (주)비케이씨 김시명 영업부장, 비엠티에스 김연동 대표, (주)썸웰 김철규 대표이사, 예스택 박영목 대표, (주)비엠에스 글로벌 백승명 대표이사, 한솔제지(주) 오상훈 예코영업팀 수석 등 총 23명에 대한 회원증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으며, 이로써 올해 총 회원수는 292명으로 늘었다.

올해 협의회는 이날 총회를 시작으로 5월 해외전시회 참관 및 제40차 포장기술인 체육대회를 비롯해 10월 제40차 포장기술인 세미나, 12월 송년회 등을 추진해 회원 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 교류를 통해 유대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한국포장기술인협회 전현수 회장은 “여러 산업현장에서 포장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는 포장기술인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포장기술인들이 주체가 되어 타개해 나가고, 개인의 연구나 기술 개발에 더욱 정진해 포장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이끌어 국가경



▲ 한국포장기술인협회 회원들이 지난 3월 29일 열린 제40차 정기총회 후 기념촬영을 했다.

제에 이바지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포장기술인들의 연구개발 결과와 노하우를 비롯해 최신 기술동향을 엿볼 수 있는 ‘포장연구개발보고서’를 발간해 회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

하반기 사업 추진 간담회

“올해부터 4회 이상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다”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회장 송경석, KPO)가 하반기 사업 등과 관련해 협력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은 제24회 국제 포장기자재전(KOREA PARK 2024)이 개막된 지난 4월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킨텍스 제1 전시장 VIP룸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의 정기 이사회와 정기 친선 골프 모임을 겸해 오는 6월 21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전 회원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각 회원사들의 하반기 계획 사업 등은 회원사들 및 외부 단체들에게 협업 요청 등을 할 예정이다.



▲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킨텍스 제1 전시장 VIP룸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지원금 등 연 1회 예산배정 규모는 각 회원사들의 내부 의견을 추가로 경청한 뒤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의 하반기 사업을 검토하고 회원들 간 협력사항 논의, 국제 세미나 추진 준비,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 6월 이사회 장소 및 주관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앞서 송경석 회장은 “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는 한동안 몇 번 만나지 못했는데 올해부터 4회 이상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면서 “국내 경기뿐 아니라 국제 경기침체, 불안정한 국제 정세 등 좋지 못한 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럴 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어려운 시기 잘 다독이면서 각 회원사들 간 대화를 통해 정보교환과 위안을 받으며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도 벌써 4월 중순이 지났다. 국제 포장기자재전의 큰 행사 참석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송경석 (사)한국공업포장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창순 (사)한국포장협회 회장, 전현수 한국포장기술인협회의 회장, 김덕열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전무, 이숙자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회장, 김충일 (사)한국포장기술사회, 김종경 (사)한국포장학회 회장 등 KPO 회원과 아니발쿨라크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아니발쿨라크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정책국장은 “파라과이 산업의 50% 정도가 식품산업으로 좋은 식품 수출에 패키징 산업이 시급,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면서 “과거 중국의 저렴한 가격을 추구했다면 현재 한국 퀄리티를 추구하는 추세로 이 자리를 통해 한국 패키징 산업과 파라과이 식품산업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한국포장기계협회

제24회 국제 포장기자재전(KOREA PARK 2024) 성료

“국내외 방문객 발길 이어지며 관심, 업체간 비즈니스 협업 성과”

세계 패키징과 이후 공급망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한국포장기계협회(회장 이시영)는 월간포장(대표 백재민), (주)경연전람(대표 김영수)과 공동주최한 제24회 국제 포장기자재전(KOREA PARK 2024)을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4일에 걸쳐 경기도 고양 일산에 위치한 킨텍스 전시장에서 이탈리아, 중국, 인도 등 세계 23개국 총 768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4500부스 규모로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패키징기술인 및 기업인, 단체, 학회 등 약 130여 명이 참석한 23일 개막 커팅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지속가능성·효율성·안전한 포장 주제의 이번 전시회는 COPHEX(제19



▲ 제24회 국제 포장기자재전 개막식이 열린 4월 23일 주요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는 모습.

회 국제제약, 바이오, 화장품기술전), KOREA CHEM(제16회 국제화학장치산업전), KOREA LAB(제18회 국제연구, 실험 및 첨단분석장비전), KOREA PHARM&BIO(제14회 국제의약품, 바이오산업전), CI KOREA(제9회 국제화장품원료기술전), KOREA MAT(제14회 국제물류산업전), KOREA COLD CHAIN(제2회 국제콜드체인산업전)을 동시에 개최했다.

화학 산업, 생활용품, 식·음료, 제과·제빵, 의약품, 화장품 등 제조업 전반에 필요한 포장·포장기계, 친환경 패키지 원·재료 및 소재, 제품개발 및 투자, 패키징 이후의 물류·유통·자동화 분야 공급망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했다.

전시 기간동안 국내외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며 관심을 받았다. 전시관 현장 스케치 등 취재하는 언론사들의 방문도 주목됐다. 업체들 간 비즈니스 협업 성과도 올랐다.

1~5홀이 마련된 1전시장에는 국제포장기자재전(KOREA PACK), 국제제약·바이오·화장품기술전(COPHEX), 국제화학장치산업전(KOREA CHEM)이 개최됐으며 △자동포장기계, 인쇄포장 및 친환경 패키지 △바이오·의약품 제조기기 및 패키징 재료 △제약·화장품 생산 및 포장기계 △화학공정 및 분체 등 화학장치 등 주요 품목이 전시됐다. 이탈리아와 인도, 중국 국가관과 대한민국의 포장대전(Korea Star Awards) 수상작품 전시관 및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3가지 핵심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ESG 지속가능패키징 전시관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7~8홀의 2전시장에는 △국제화장품원료·기술전(CI KOREA) △국제의약품·바이오산업전(KOREA PHARM & BIO) △국제연구·실험 및 첨단분석장비전(KOREA LAB)을 선보였다. 화장품원료 및 소재, 분석 및 컨설팅과 원료의약품 등 주요 품목과 인도, 중국의 원료의약품 국가관이 운영돼 시선을 끌었다.

9~10홀이 자리한 2전시장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 자율주행과 로봇의 자동화 등 물류산업 핵

심 아이템을 선보인 국제물류산업대전 (KOREA MAT), 국제콜드체인산업전 (KOREA COLD CHAIN)이 열려 호응을 얻었다.

교육 프로그램, 포장 솔루션 및 기술 트렌드 세미나, 해외 바이어 상담도 활기를 띄었다. 한국·대만·일본단체 주축인 아시아 패키징 단체클럽 포럼 등 정보 교류의 장도 열렸다. 국내 패키징 산업 기술개발 및 패키징 산업에 기여한 유공자 등을 발굴, 대한민국패키징대전을 통한 포상도 진행됐다.

동아제약

박카스D 패키지 손잡이 종이로 변경 연간 25톤 이상 플라스틱 절감 효과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지난 3월 27일 사회적책임경영 일환으로 ‘박카스D’ 20병 박스 패키지의 플라스틱 손잡이를 종이 손잡이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은 그동안 박카스D 20병 박스 패키지에 폴리에틸렌(PE) 소재의 플라스틱 손잡이를 적용해왔다. 이번 종이 손잡이 교체로 연간 약 25톤 이상 플라스틱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롭게 적용한 종이 손잡이는 외부 시험 기관과 동아제약 자체 분석을 통해 강도 테스트를 완료해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앞서 박카스는 2020년에도 박카스 비닐봉투를 재생 용지를 사용한 종이봉투로 교체한 바 있다.



▲ ‘박카스D’ 20병 박스 패키지 종이 손잡이 적용 모습

동아제약 관계자는 “종이 손잡이 도입으로 플라스틱 절감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포장 확대를 비롯해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C

에코밴스, SK리비오로 사명 변경 베트남에 7만 톤 규모 PBAT 공장 신설

SK리비오는 지난달 5일 이사회를 열고 사명 변경을 위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새 사명은 ‘자연에서 분해되어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leave zero)’는 생분해 소재 비즈니스 모델(BM)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다. SK리비오는 신사명과 연계한 새로운 슬로건



▲ SKC의 생분해 소재사업 투자사 SK리비오 구성원들이 새로운 CI와 슬로건을 들어보이고 있다.

‘We leave zero’도 이날 함께 공개했다.

SK리비오는 올해 상반기 중 베트남 하이퐁시에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연산 7만톤 규모의 PBAT(Polybutylene Adipate Terephthalate) 생산공장을 착공할 계획이다.

SKC는 PBAT의 응용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나무로부터 추출한 나노셀룰로스를 보강재로 활용, 강도를 일반 플라스틱 수준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농업용·포장용 필름이나 각종 소비재 용기는 물론 기저귀, 생리대 등 위생재와 필터 소재인 부직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SKC의 생분해 라이멕스(LIMEX) 소재 사업 투자사인 SK티비엠지오스톤의 생산 시설도 함께 하이퐁시에 들어선다. 생분해 라이멕스는 천연 무기물인 석회석에 일반 플라스틱 대신 생분해 수지인 PBAT를 혼합한 친환경 신소재다.

SK리비오 관계자는 “새로운 사명으로 생분해 소재 사업의 의미와 비전을 보다 명확히 드러냈다”며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고부가 소

재 제품을 양산하며 친환경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케미칼

PE·PP 제품 포장백에 r-PE 적용 연간 1,500톤 이상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 기대

롯데케미칼(대표이사 이훈기)이 여수공장과 대산공장에서 생산되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25kg 제품 포장백 전량에 재활용 소재를 적용했다고 지난 3월 28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포장백에는 재활용 소재 30%가 적용된다. 롯데케미칼의 친환경 소재 브랜드인 ‘에코시드(ECOSEED)’의 리사이클 폴리에틸렌(r-PE)을 활용해 제작됐다.

여수공장과 대산공장에서는 2023년 기준 약 5,400톤의 플라스틱을 활용해 포장백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 ECOSEED r-PE 소재를 적용한 포장백으로 연간 약 1,500톤의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2021년부터 재활용 플라



▲ ECOSEED r-PE적용 된 포장백

스틱 포장백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했으며, 고객사의 협조를 받아 폐포장재를 회수 후 r-PE백용 원료를 생산하는 플라스틱 선순환 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향후에는 롯데 화학군 계열사에도 다양한 제품에 r-PE백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리사이클 플라스틱과 바이오플라스틱 소재를 통합해 친환경 소재 브랜드 에코시드를 론칭했다. 에코시드는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플라스틱을 리사이클할 수 있는 고품질의 제품군(r-PET, r-PC, r-ABS, r-PE, r-PP)을 보유하고 있다.

CJ대한통운

패키징 특화기술 상용화

물류비용 절감 및 소비자 편의 증진 기대

CJ대한통운(대표이사 신영수)은 자사 패키징혁신센터가 개발한 의류 특화 폴리백 패키징 설비



▲ CJ대한통운 패키징혁신센터 모습

‘앱스(APPS)어패럴 자동 포장 시스템’과 ‘윈터치 박스&송장 기술’을 상용화해 고객사 물류에 적용했다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앱스는 원단 위로 의류를 일렬로 배열해 이동시키면서 감싼 뒤 포장까지 자동 마무리하는 설비다.

앱스를 이용하면 자동화에 따른 물류비 절감뿐 아니라 재활용 플라스틱(PCR) 포장재, 가위가 필요 없는 ‘이지 컷’ 적용 등으로 분리배출의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

윈터치 박스&송장은 테이프를 쓰지 않으면서도 상자 포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이다.

CJ대한통운의 패키징혁신센터는 화성 동탄 물류단지에 조성된 연구조직으로 현재 택배상자 파손 가능성을 대폭 줄이는 R&D에 매진 중이다. 수백번의 낙하실험과 함께 가혹한 상자 적층 및 진동 환경, 온도 변화 등의 테스트를 거쳐 가장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포부다. 특히 올해 안으로 테스트로 입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 고정형 패키징을 상용화해 고객사와 소비자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상품별 안정화·효율화된 박스 공급을 통한 파손 위험 및 비용 절감 효과를, 소비자에게는 빠르고 안전하면서도 최적화된 박스 포장으로 구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찬우 CJ대한통운 패키징 기술팀장은 “패키징을 비롯해 물류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서는 시장과 고객에 대한 이해, 페인 포인트 해결 의지가 중요하다”며 “다양한 고객 접점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제품 특성과 배송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패키징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